

*The Report of the KACN,
No. 27, pp.233~239(1989)*

月出山國立公園의 改善方案

鄭 榮 善
造景設計·瑞安(株)

A Review on the Master plan of Wolch'ulsan National Park

by
Chung, Young-Sun
Soe-Ahn

서 론

1. 研究 背景

국민소득의 증가, 여가산업의 발전, 그리고 각종 교통시설의 발달과 자동차의 대량 보급은 국민의 餘暇活動을 급속히 增大시키고, 最近에는 국민의 餘暇活動 行態도 多樣한 變化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7년 最初로 지리산국립공원이 指定된 이래 22년간 총 20여개소의 국립공원의 指定, 開發, 管理方式은 공원의 利用 측면에서나 국립공원 設定의 1次的이자 영원한 目的인 自然資源의 保存 측면에서 共히 많은 모순점을 露呈시켜 왔다. 더우기 變化하는 餘暇 行態나 多樣한 여가활동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지 못한 實情이다. 特히 국립공원의 大型 集團施設地區 중심의 개발은 주로 숙박·상업시설지역 設定으로 充足되었기 때문에 公園內部 開發이 지지부진하며 公園的 利用과는 거리가 먼 건축 밀집지역화 하여 國立公園 속에 人工의이고 삭막한 都邑만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個個 국립공원의 特性 있는 開發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우기 國立公園의 管理·利用面을 볼 때 保存과 開發의 相反된 요구와 收容 能力의 設定 基準의 결여로 각종 便宜·衛生시설의 不足과 不合理性은 끊임 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또 自然 및 人文資源 등 국립공원의 資源에 대한 弘報와 啓導의 측면에서 볼 때 專擔 機能이 취약하고 전문인력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環境解說 매체가 全無한 實情이다.

이에 본 연구는 自然資源 調査와 併行하여 本 公園지역의 既存 利用 패턴, 施設 등에 대한 諸調査와 分析을 통하여 開發의 基本적 方向을 設定하기 위한 概念의 틀을 提示하기 위한 것이다.

2. 研究 目的

月出山 최고봉인 天皇峰(해발 809m)을 중심으로 朱芝峰(해발 490m), 國師峰(해발 613m), 迦智山(509m)으로 연결되는 月出山國立公園(1988. 6. 11. 指定)은 特異한 岩石景觀, 풍부한 文化·歷史的 景觀을 지닌 곳이나 奇岩怪石의 돌출로 可用地가 적어 他 國立公園에 비해 公園 면적이 협소하며, 背後 都市가 대단히 近接해 있다. 그러므로 自然資源 調査를 土台로 한 景觀의 特性을 파악하고 해석하며, 나아가 人文·歷史·利用實態 등을 파악하여 國立公園의 合理的 利用方案을 提示하는 데 본 研究의 目的이 있다.

3. 研究의 範圍

- (1)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月出山 國立公園地域 41.88km² 및 公園保護地域 16.73km²를 포함한다.
- (2) 내용적 범위로는 關聯上位計劃과 法規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人文現況, 自然現況, 調査內容을 分析하여 公園 利用·管理 對策을 提示한다.

調查 및 分析

1. 立地

行政區域上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과 군서면, 학산면, 금정면, 그리고 강진군의 성전면 일대로 위도상으로는 東經 126° 37'—126° 56', 北緯 34° 41'—34° 52'의 범위에 있다. 地理的 位置는 전남 光州에서 54km, 木浦에서 45km, 首都圈과는 367km의 거리에 있다.

國土 空間上으로 볼 때, 月出山은 우리 나라의 主脈을 이루는 太白山脈에서 南西쪽으로 分枝하여 한반도의 南西部 內陸에 위치하는 바, 국토 공간 구성에 있어 圈域上으로 볼 때, 4大江 중 영산강 유역의 光州지역 生活圈 중 木浦地方 都市生活圈에 屬한다.

交通 接近 體系는 鐵道の 경우, 호남선(서울↔광주)을 이용, 광주와 나주 및 영암을 거쳐 月出山에 이른다(광주→나주→영암→월출산),

고속도로의 경우, 호남고속도로(서울↔광주), 남해고속도로(부산↔광주), 88올림픽도로(대구↔광주)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다.

항공로는 서울—광주, 서울—목포간에 여객기가 운항되고 있다.

국도는 지역 내에 國道 13호가 통과하며, 北쪽으로 28km의 거리에 國道 1호가 통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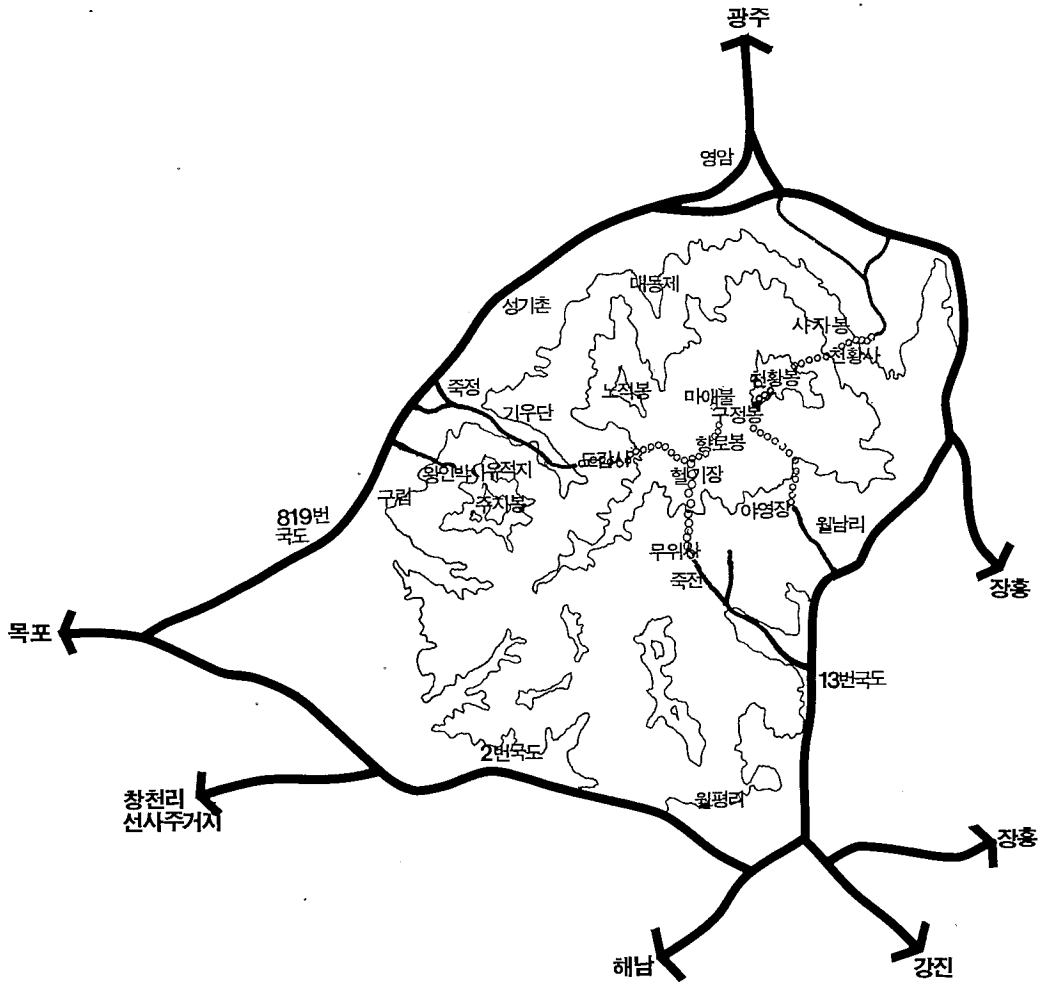
2. 利用者 調査

(1) 利用者 現況

月出山을 찾는 이용객은 年間 258,000명(86년말 현재)이며, 天皇寺·道岬寺·無爲寺지역이 利用 據點으로 되고 있다. 이 중에 천황사지역이 가장 높은 利用率을 보이고 있고, 月別로는 천황사·도갑사지역이 3—5월 및 10—11월, 즉 봄과 가을에 行樂 위주의 이용객이 集中的으로 몰린다. 無爲寺의 경우는 겨울을 제외한 3계절의 고른 이용율을 보이며 무위사계곡은 避暑用으로 집중 이용되고 있다.

(2) 利用者 推定

전국의 國立公園의 이용율은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바, 80년의 1,083만명에서 86년의 3,613만명으로 연평균 25%(자료 : 건설부 자연공원과)의 증가율을 보이는 데, 이는 전국민의 87%가 1번씩 국립공원을 이용한



월출산국립공원 주요지형도

것으로서 北漢山·慶州·閑麗海上·雪嶽山國立公園의 順으로 이용자가 높고, 年평균 증가율은 북한산·다도해상·서산해안의 順이다(자료: 건설부 자연공원과).

月出山국립공원의 이용객 추정은 表 1과 같다.

表 1. 利用客 推定

年 度	利用客數(人)
1986	258,000
1991	380,000
1996	578,000
2001	845,000

(자료: 월출산 국립공원 후보지조사 및 기본구상)

3. 施設 現況

(1) 集團施設

1973년 道立公園으로 지정되어 靈岩郡에서 관리해 온 본 國立公園은 76년에 수립된 「월출산도립공원계획」 및 「集團施設地區 新設에 의한 用途地區計劃 現況」(1981)은 表 2와 같고 集團施設地區 土地利用 現況은 表 3과 같다.

道岬寺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호텔 1棟을 비롯, 산장·여관 등 숙박시설과 상점·매점 등의 상업시설, 관리사무소·파출소 등의 공공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施設은 대체로 낙후된 편이고, 自然發生的으로 생긴 상가와 더불어 도감사까지 지나치게 깊이 시설이 들어와 있다.

天皇寺 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숙박시설로서 여관·산장과 상업시설로서 토속음식점·토산품판매점 및 상가가 있고, 공공시설로서 매표소·관리사무소·주차장·화장실·야영장·노래비 등이 있으며 私立美術館이 공사중에 있다.

無爲寺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주차장 이외에 거의 未開發 상태로 되어 있다.

月南寺의 月南靑少年야영지가 개설되어 운동장·숙소·다이내트랙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야영장 入口部에 상가·산장(2棟)·간이매점이 있다.

表 2. 用途地區 計劃現況

區 分	計	自然保存地區	自然環境地區	聚落地區	集團施設地區
面 積(km ²)	30.81	15.872	14.142	0.430	0.366
構 成 比(%)	100.0	51.5	45.9	1.4	1.2

表 3. 集團施設地區 土地利用計劃

(單位：m²)

用途地區	計	道岬寺地區	無爲寺地區	天皇寺地區
計	366,000	173,000	59,000	134,000
宿泊施設地	61,700	20,000	22,700	19,000
商業施設地	9,800	3,050	1,550	5,200
公共施設地	5,000	1,800	400	2,800
綠地	255,490	145,200	32,050	78,240
其他施設地	34,010	2,950	2,300	28,760

(자료 : 영암군, 월출산 국립공원 후보지조사 및 기본구상)

(2) 單位施設

國立公園 등산로변에 있는 單位施設들은 안내관·방향표지판과 같은 案内施設과 대피소·구름다리·화장실 등 편의시설, 쓰레기수거장이 배치되어 있는데, 쓰레기수거장은 視覺的으로 눈에 드러나지 않게 배치되어 있다.

(3) 動 線

月出山 주진입로는 「영암읍에서 천황사→구림→도감사」까지, 「구림에서 王仁박사 유적」까지, 「선릉리

에서 무위사까지 각기 手指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포장되어 있다. 본 공원을 縱走하는 등산로는 도감사에서 천황봉, 천황봉에서 도감사에 이르는 월출산 중주코스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서 16.4km(약4시간 소요)거리이며 表 4와 같다.

表 4. 월출산 등산로

(單位 : km)

路 線 名	延 長
天皇寺→바람골→구름다리→天皇峰→九井峰→磨山如來坐像→無爲寺·道岬寺	16.4
道岬寺·無爲寺→九井峰→天皇峰→山城臺→귀뜰바위→龍湫瀑布→靈岩邑	15.2
天皇寺→노루재 저수지→七峙瀑布→638高地→無爲寺	13.0
金陵鏡浦臺→天皇峰	2.7
바위다기	
天皇寺→바람골일대→天皇峰일대	

(4) 歷史·文化施設

月出山 일대는 문화·역사적 관점에서 매우 소중한 資源이 풍부하고, 불교사상과 관련된 文化財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三國時代의 유적과 전설이 다수 있으며, 중요 資源으로는 表 5와 같이 국보(3), 보물(4), 지방문화재(5)가 있다.

表 5. 文化資源

區 分	數量	資 源 內 容
國 寶	3	○無爲寺極樂殿(13號) ○道岬寺解脫門(50號) ○月出山磨崖如來坐像(114號)
寶 物	4	○道岬寺 石造如來坐像(89) ○月南寺址模塼石塔(298號) ○月南寺址石碑(313號) ○無爲寺禪覺大師遍光塔碑(507號)
地方文化財	5	○道岬寺道說守眉碑(38號) ○月谷磨崖如來坐像(149號) ○道岬寺石槽(150號) ○道岬寺五層石搭(151號) ○守眉王師碑(152號)
地方記念物	2	○月出山(3號) ○王仁博士遺蹟(20號)

問題點 및 改善 方案

1. 利用率 증가에 따른 對策

국립공원의 指定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賦存資源을 훼손하는 촉매작용이 되어온 경우가 많이 있다.

前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月出山을 찾는 利用客의 年平均 증가율은 全國立公園의 25%에 비해 다소 뒤떨어지나, 月出山은 自然資源指向型의 山岳型 국립공원으로서 奇岩怪石으로 이루어진 景觀構成이 매우 단순하고 면적상으로 볼 때 他 국립공원에 비해 가장 좁은 면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장래 국립공원 시설들이 들어설 경우 어떤 국립공원보다 큰 利用壓迫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즉 이용객이 늘어나고 능선부를 종주하는 등산객이 증가할 경우 월출산은 대부분 岩盤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自然景觀의 훼손이 加速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公園利用의 限界를 설정하여 규제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공원 이용의 50%를 占하는 5-8月の 集中 利用期에는 규제 조치로서 公園자원의 훼손이나 公園 분위기 손상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한다.

도갑지구의 기존 야영장의 경우를 보면 食水가 부족하고 면적이 협소하지만 靑少年들의 시끄러움 때문에 一般 行樂客들은 자연히 계곡쪽으로 몰려들어 취사·캠핑을 하는데 계곡의 취사·목욕 등 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도록 한다. 한편 예방 조치로서는 場所別 集中率을 조사하여 基準을 설정하고 入場客數를 制限하거나, 과밀 이용에 대한 資源休息年制를 導入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2. 集團施設地區

기존 集團施設은 道立公園 計劃에 의거하여 천황사·도갑사 지구에 既開發되었고 현재도 시설들이 꾸준히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月出山의 면적 규모나 地形景觀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集團施設地域의 축소 조정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래, 집단시설지구의 설정은 廣大한 면적을 가진 美國의 國立公園에서 發想된 것이고 公園 면적이 적은 西歐에서는 기존 취락을 이용하거나 單獨施設 위주로 개발되고 있다. 立地上으로 볼 때 영암읍과 集團施設地區까지는 10分 거리로 숙박시설 등은 近接된 영암읍의 도시시설을 개발·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영암읍의 地域經濟의 활성화와 月出山국립공원의 自然을 保存하는 가장 합리적인 方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단시설지구 내의 既設置된 상가와 숙박시설은 축소 조정하여 最小化하되, 質的 水準은 高級化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도록 한다.

3. 公園 內部施設

공원 내부시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用水·화장실·쓰레기 수거 등과 같은 衛生施設일 것이다.

화장실과 쓰레기통은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배치하되 차량 수거가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配置 原單位는 2시간 거리가 적합할 것이나 月出山국립공원의 경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공원 이용객의 行爲나 規模를 규제 제한하고, 이용객을 啓導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취사행위와 쓰레기가 될만한 물건의 휴대를 금지하거나 지정된 등산로나 야영장만을 사용토록 한다. 아울러 기존의 등산로변의 쓰레기통을 철거하고, 個人別 발생 쓰레기는 각자 다시 가지고 나올 수 있게 公園 入場時에 교육을 하고 收去用器를 주도록 한다.

4. 등산로

도갑사에서 천황봉에 이르는 능선의 종주코스는 몇 개소에서 方向表示가 애매하고 노푼 및 철재계단 등이 정비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의 月出山국립공원은 탐방 루트가 다양하지 못하므로 기존의 루트 정비와 아울러 새로운 루트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탐방 루트에 대하여 사전에 案内와 세밀한 紹介를 公園의 入口에서 시행토록 한다.

5. 歷史 및 文化景觀

月出山 일대는 口傳되는 전설과 道詵·王仁博士에 대한 기록과 전설, 佛敎 및 道敎文化的 흔적이 매우 많

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백제문화의 유적지이기도 하므로, 文化財分野의 학술적·전문적인 철저한 調査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졸속한 개발과 성급한 공사 등으로 우리나라의 귀중한 古代史 資料들을 자칫 잃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이상의 結果에서 보듯이 증가일로에 있는 國民들의 다양한 餘暇 欲求를 충족시킬 수 있는 自然公園으로의 개발과 편의시설의 설치는 限定된 國土의 自然資原을 保存한다는 관점에서 自然의 收容 能力을 고려하여 적절한 制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한 慰樂性이나 商業性을 강조하기보다 國民 敎化나 自然敎育의 場으로 개발의 방향이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諸盤 條件에 대한 충분한 調査와 깊이 있는 研究를 통하여 본 공원이 지니는 歷史的·文化的·景觀의 價値를 提高할 수 있도록 體系의이고 조심스런 開發이 수행되어야 한다. 開發 以後에도 利用客의 行態에 따른 事後 補完作業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서 뛰어난 景觀과 文化的 가치를 지닌 본 지역의 自然性과 歷史·文化性을 후손에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